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1년 10월 7일(금)**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여성노인의 현주소는?

여성노인 빈곤율 47.2%, OECD 회원국 중 최고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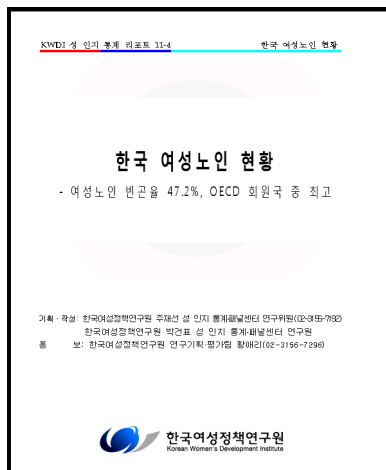
배포 날짜 : 2011년 10월 7일(금)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애리

(연락처: 02- 3156- 7296/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자료관련 문의 : 주재선 연구위원

(연락처: 02- 3156- 7192/ 이메일: jjjs2000@kwdimail.re.kr)



<KWDI 성 인지 통계 리포트 11-4>

한국 여성노인 현황

작성자 : 주재선 연구위원

박건표 연구원

분야 : 성 인지 통계, 고령화

※ 이 리포트는 여성노인인구의 경제활동과 빈곤, 그리고 여가에 대해 최근 통계를 간략히 분석하고 있음. 노인인구는 자료원에 따라 55~7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정의 되어 분석되었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 성인지통계·패널센터(<http://gsis.kwdi.re.kr>)는 제15회 노인의 날을 맞아 한국 여성노인의 경제활동과 소득수준, 여가활동 현황을 요약 분석한 <KWDI 성인지통계 리포트>를 발간하였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47.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자료에 나타난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다.

여성노인 빈곤율 47.2% OECD 회원국 중 최고
한국여성의 연평균 연금수급액, OECD 회원국 중 24위

□ 노인인구의 빈곤율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여성 빈곤율은 47.2%로, OECD 회원국 중 최고(<표 8> 참조)
 - ※ OECD 회원국 여성노인의 빈곤율 평균(15.2%)에 비해 32.0%p 높은 수준.
 - ※ 한국 전체인구 중 빈곤자의 비율은 14.6%. 1인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76.6%.
 - ※ 한국 노인 남성의 빈곤율은 41.8%.
 - ※ 한국 노인의 성별 빈곤율 차이는 5.4%p.

- 한국, 여성노인의 연금수급액은 낮고, 여성 빈곤율은 높은 국가(<그림 4> 참조)
 - ※ 한국은 멕시코, 일본, 미국, 포르투갈, 그리스, 호주와 더불어 OECD 회원국 중 연간 연금수급액이 낮고, 빈곤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
 - ※ OECD 회원국 중 여성노인의 연간 연금수급액이 높으면서 빈곤율이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 연금 수령 경험과 국민연금

- 55세 이상 여성 중 42.4%가 연금 수령 경험자(<표 5> 참조)
 - ※ 연령별로 55~59세 여성 6.2%, 60~64세 여성 25.6%, 65~69세 여성 63.6%, 70~74세 여성 72.9%, 75~79세 여성 77.7%가 연금 수령 경험자.
 - ※ 55세 이상 남성 중 연금 수령자 52.6%.

○ 2010년 여성의 연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2,168천원으로 남성의 64.4% 수준(<표 6> 참조)

※ 2010년 국민연금 여성 수급자는 1,198천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0% 차지.

※ 2010년 여성 수급자의 연평균 수급액은 2,168천원.

※ 남성의 경우 수급자는 1,794천명, 연평균 수급액은 3,365천원.

○ 한국여성의 연평균 연금수급액, OECD 회원국 중 24위(<표 7> 참조)

※ 한국 여성의 기대되는 연금수급 총 년수는 25.2년.

※ 한국여성 연금의 연평균 추정수급액은 11,131US\$로 추정.

우리나라 노령화지수 10년새 2배 증가
2010년 60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6.9%

□ **여성인구의 고령화와 경제활동**

○ 2010년 노령화 지수 69.7%, 노년부양비 15.6%

※ 2010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여성 13.4%, 남성 9.2%.

※ 노령화지수는 2000년 35.0%에서 2010년 69.7%로 2배 증가.

<표 1>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 추이

(단위 : 1,000명, %, %p)

연도	여성 노인인구	남성 노인인구	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
1980	907(4.9)	539(2.9)	11.4	6.2
1985	1,097(5.4)	652(3.2)	14.5	6.6
1990	1,352(6.3)	811(3.7)	19.4	7.2
1995	1,666(7.5)	975(4.4)	25.8	8.3
2000	2,084(9.1)	1,287(5.6)	35.0	10.2
2005	2,629(11.2)	1,736(7.4)	48.6	13.0
2010	3,227(13.4)	2,197(9.2)	69.7	15.6
2010-2000 증가	1,143	910	34.7	5.4

주 : () 전체 인구 중 65세 노인인구 비율.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 「2010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재편집.

* 노령화지수 : 14세 이하 유년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백분비

○ 2010년 60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6.9%

※ 60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1,162천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39천명 증가.

※ 60세 이상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655천명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은 50.3%.

※ 2010년 여성 노인 취업자 1,135천명, 2003년 이후 증가(<그림 1> 참조).

<표 2>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단위 : 1,000명, %, %p)

성별	2000		2010		지난 10년 간 증감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923	30.2	1,162	26.9	239	-3.3
남성	1,070	49.7	1,655	50.3	585	0.6

60세 이상 여성노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문제'
노후준비하는 여성노인 40% 정도에 머물러

□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노후준비 방법

○ 60세 이상 여성노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문제'

※ 2009년 60세 이상 여성노인이 겪는 어려움은 '건강문제' 70.9%, '경제적인 어려움' 61.3%, '외로움, 소외감' 19.8%, '소일거리 없음' 14.5% 순임.

○ 여성노인의 노후준비 비율 37.1%(<표 4> 참조)

※ 여성의 노후준비방법은 예금·적금, 저축성 보험 55.7%, 국민연금 34.9%, 사적연금 25.5%, 부동산운용 20.9% 순.

※ 60세 이상 남성인구는 59.4%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음. 노후준비방법은 저축성 보험 49.1%, 국민연금 47.8% 순.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 노인 여가시간이 가장 길어
미디어 이용, 교제활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 보내

□ **노인인구의 여가**

○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여가시간이 전체 인구 중 가장 길어(<표 9> 참조)

※ 60세 이상 노인의 여가 및 교제활동 시간은 6시간 26분, 여성 노인은 6시간 01분, 남성 노인은 7시간 00분으로 남녀 차이는 59분.

○ 미디어 이용, 교제활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 보내

※ 미디어 이용 시간 3시간 26분, 교제활동 54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47분.

※ 남성은 미디어 이용,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순.

※ 여성은 미디어 이용, 교제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순.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미디어 이용,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시간 많아.

○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시간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크게 늘어(<표 10> 참조)

※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시간 1999년 32분, 2009년 47분, 15분 늘어.

※ 60세 이상 남성 노인의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시간 1999년 45분, 2009년 1시간 05분으로 20분 늘어.

□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패널센터에서는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방대한 국내·외 성 인지 통계(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한 성별분리통계)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분기별 여성고용동향 자료 등 다양한 성 인지 통계를 분석한 <KWDI 성 인지 통계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표와 그림 참조)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KWDI 성 인지 통계 리포트> 전체파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일가정양립, 여성인권, 성폭력, 가정폭력 등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도자료 끝.